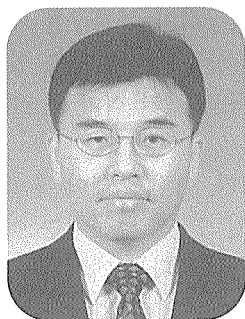


지식산업 강국의 길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최근 한국의 산업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수출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교역조건도 갈수록 악화돼 무역채산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산업이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PC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통산업으로까지 수출부진이 확산되고 있다.

IT산업에서는 소수의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일류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시장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다. 또 전통산업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이 우리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어 이들과 차별화된 고급제품을 만들지 않는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렵게 됐다.

결국 현재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는 수출급감은 세계경기의 침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은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점유율은 99년 28%에서 작년에는 3%로 높아졌으나 올해 들어 IT제품 수출 급감으로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의 점유율은 99년 5.1%에서 작년에는 4.3%로 떨어지는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수출부진으로 한국제품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처럼 주요 시장에서 한국제품이 경쟁국 제품에 밀리고 있는 것은 결국 한국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노정(露呈)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은 범용제품 위주의 저가수출 전략을 통해 세계시장 공략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한동안 이 전략은 실효를 거뒀다. 그러나 이제 이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중국 등 후발국이 바로 이 전략으로써 세계시장을 제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후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에 무게를 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부채비율을 얼마 이하로 줄이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주된 주문이었다. 또 그렇게 해야 기업은 부실징후 후 취급을 면할 수 있었다.

재무구조 개선은 차입 위주의 방만한 경영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산업구조 개조가 수반되지 않는 재무구조 개선은 그 약효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법이다.

요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D램 중심의 사업구조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재조정과 외자유치 성사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이나 섬유 등에 종사하는 현안 기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사업구조를 개조하지 못한채 이뤄진 채권단의 자금지원도 '밑빠진 독 물붓기' 식이 돼 버렸다.

결국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를 과감히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림은 물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산업강국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산업을 버리느냐 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 대상은 한마디로 지식기반산업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이 산업에 매달리는 것이 최선이다. 지식기반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생산비용도 절감시켜 고성장·저물가를 달성시키는 매력적인 것이다.

한국은 지식기반산업에서 승부를 걸만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재가 많고 사람들의 개성과 독창성도 뛰어난 편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유망 지식기반산업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 베인 & 컴퍼니 보고서에서 제시됐듯이 잠재시장은 크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영화나 음악 교육 IT서비스 관광 등 지식집약형 서비스 산업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조업을 지식 집약화 하는 것도 물론 시급한 일이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적극 시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자동차에 텔레매틱스 등 서비스를 부가시켜야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바이오 신약이나 바이오 사이언스 유람선 등은 한국이 기대를 걸만한 유망 제조업으로 예시되고 있다.

산업을 지식집약형으로 발전시키는데는 노동 교육 R&D 지적재산권 외국인직접투자 벤처 등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다. OECD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을 촉진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지식의 창출에는 노동과 교육 R&D가, 활용에는 벤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식의 확산에는 투자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가 서로 융합돼야 지식기반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부체제의 대폭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기 영역을 둘러싸고 부처간 영역다툼이 치열해서는 지식강국의 꿈을 이룩할 수 없다. 산업 노동 교육 금융 등을 맡은 부처간 기능의 재편이 필요하다.

CEO의 의식이 깨지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경우 지식집약형 기업이 될 수 없고, 산업의 지식집약화도 이뤄질 수 없다. CEO들이 권한을 대폭 하부로 이양하든지, 아니면 CEO들이 스스로 디지털화 되든지 선택해야 한다.